



노각나무 / *Stewartia pseudocamellia* Maxim.

구분	설명
생물분류	식물
속국명	노각나무속
과국명	차나무과

과명	Theaceae
일반특징	<p>요약설명 : 차나무과 낙엽 활엽 교목으로 우리나라의 충청북도 소백산을 기준으로 하여 남쪽 지역에서 자란다.</p> <p>분포지역 : 일본; 충청북도 소백산 이남.</p> <p>형태 : 낙엽 활엽 교목.</p> <p>크기 : 높이 7 ~ 15m.</p> <p>꽃색 : 백색</p> <p>개화기 : 6월, 7월</p> <p>잎은 어긋나고, 타원모양 또는 넓은 타원모양이다. 예두고 원저 또는 끝이 넓고 뾰족한 모양이다. 겉면에 비단같이 부드러운 털이 있으나 점점 없어지고 뒷면에 잔털이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물결모양 톱니가 있다.</p> <p>꽃은 암꽃과 수꽃이 한 그루에 달리며, 6월 말 ~ 8월 초에 핀다. 새가지의 밑부분에서 잎 달린 자리에 난다. 꽃대에는 털이 없다. 꽃을 감싸는 작은 잎은 달걀모양 또는 둥근 모양이다. 꽃받침조각은 둥글며, 작고 가는 털이 나 있다. 꽃잎은 5~6장이고 하얀색이며, 끝은 칼로 평평하게 잘라 놓은 듯한 거꿀달걀모양이다. 가장자리는 약간 물결모양이다. 씨방에 부드러운 털이 있으며 암술대는 5개로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진다. 수술은 5개이다.</p> <p>열매는 오각형의 삭과이다. 9월 말~10월 중순에 노란빛이 도는 붉은색으로 익으며 부드러운 털이 발달하였다.</p> <p>줄기의 높이는 7~15m에 달한다. 어린 가지에는 털이 없다.</p> <p>원뿌리와 곁뿌리가 돌아 있다. 나이테는 희미하게 구분된다. 나이테 속에 물관의 크기가 균등하게 분포하는 목재이고, 광택은 보통이다. 딱딱하고 무거우며 튼튼하다.</p> <p>모과나무나 배롱나무와 같아. 나무껍질이 벗겨지면서 흑황색이나 홍황색 얼룩무늬가 생겨서 비단나무라고 불리기도 한다. 겉 부분은 아주 넓으며 갈색, 중심부는 갈색 줄무늬가 있는 연한 자흑색으로 겉 부분과의 구분이 분명치 않다.</p> <p>기름진 땅과 진흙이 조금 섞인 보드라운 흙에서 잘 자란다. 물이 잘 빠지고 뿌리 근처 땅이 서늘해야 좋다. 추위에 잘 견디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. 그늘에서도 잘 견디기 때문에 나무 밑에서도 자라는 것이 가능하며, 바닷가에서도 자란다. 대기오염에 대한 저항성도 높다.</p> <p>씨를 뿌리거나 꺾꽂이를 하는 방법으로 번식시킨다. 우리나라에서만 자연적으로 나서 자라는 특산 식물이다. 세계적으로 7종의 노각나무 종류가 분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품종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.</p>